

당분간 변동성장세... '실적개선 뚜렷' IT 성장주 관심을

코로나 확산... 증시 투자전략
 증권가 증시 엇갈린 전망
 "아직은 기우" VS "관망세"
 IT, 우호적 펀더멘털 조성
 반도체 주도주 흐름 여전



중국 베이징 내 미국 IT기업 애플 매장.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발발 당시만 해도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면 파장이 끝날 것"이라던 증권가의 낙관론도 이제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가져온 파장이 단기간 변동성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감지된다. 소비·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내수경기가 부진할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정보기술(IT)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IT 섹터 기업이 최근 잇따라 신고가 경신 행진을 펼치는 등 우호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1조4000억 판 기관... 엇갈린 전망
 코스피는 한 달새에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달 20일 2262.64에 마감했으나 21일 그보다 4.4% 떨어진

2162.84로 거래를 끝냈다. 전염병 공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일 이후 증가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기관은 지난주(17일~21일)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405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평균적으로 매일 2800억원을 내다 판 셈이다. 같은 기간 418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 3배 이상 팔았다.

환율도 오름세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10.5원 오른 1209.2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해 9월 3일(1215.6원)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행이 이달 내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 가치는 추락했다"며 "이러한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염 확산 경로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중국 외

감염자 비중은 2% 이하"라며 "지나친 공포심리는 기우"라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IT에 유리한 매크로 환경 등 아직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각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보면 주식을 매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힘들다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라는 견해도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증시의 상승세와 중국 정책 부양 기대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전 요소는 있다. 고강도 정책 대응 조기화, 유로존 실물경기 바닥 반등, 대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의 재정 부양 등"이라면서도 "강(強)달러 현상을 돌릴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중립 이하의 장세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경수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해답은 IT? 성장주 대응 필요
 코로나 공포에도 IT 업종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재난 수준의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IT 성장주에

대응하는 것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입을 모은다. 미국 IT기업 애플이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IT 산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나왔음에도 IT 주도주 장세는 여전할 것이라 분석이다.

노동길 연구원은 "IT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과거보다 현금과 풍부한 현금흐름이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마주했다"며 "금리 하락 기대국면에서 IT 섹터가 여전히 유리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IT 내 반도체 업종의 주도주 흐름은 여전하다"면서 "확산세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이라고 했다.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면 시장은 본래 펀더멘털로 회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경수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가 경기 흐름패턴 자체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등 무형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며 IT의 주도주 변화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낮춘 것이 IT 업종 전체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라임펀드' 손실 벌써 1.2조... 추가 손실 불가피

무역금융펀드 실사 고려 땀
 투자손실 규모 더 확대 될 듯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손실이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순자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다.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원으로 설정액(4조345억원)보다 1조2203억원이나 적다.

투자원금인 설정액보다 운용 결과에 따른 현 가치인 순자산이 1조2000억원이 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D-1호', '테티스 2호' 2개 모(母)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기준가격이 조정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순자산과 설정액 격차는 지난 12일 2800억원 수준에서 지난 14일 9000억원을 뛰어넘었고, 17일부터 1조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또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투자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

사 결과는 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자산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전액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P-note) 원금(5억 달러)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2개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이 펀드들에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플루토펀드(719억원)와 무역금융펀드(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1200억원 넘게 투자한 4번째 모펀드인 '크레디트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까지 고려할 경우 투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들과 맺은 TRS 계약도 투자 손실 계산 시 고려 대

상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의 TRS 계약(자펀드 포함)은 총 86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이들이 실제 자금을 먼저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기준가격이 조정되더라도 투자자 최종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금회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에 파견된 검사반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될 때까지 상주할 예정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대림산업 쿠웨이트 황 재처리 공장 약조전속 1개월 조기 준공

대림산업은 최근 쿠웨이트에서 황 재처리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 석유화학회사 압둘라 파하드 알 아즈미 부사장과 대림산업 김승규 실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황 재처리 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정유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인 황을 제거하는 한편 재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체 황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공사준공으로 황 재처리 능력은 하루 2431톤에서 9600톤으로 증가했으며 시간당 1900톤의 고체 황을 출하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성됐다. 대림이 설계부터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책임지는 일괄 도급방식으로 수행했다. 총 사업비는 약 6180억원 규모다. 공장은 수도 쿠웨이트 시티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미나 알 아흐마디 석유화학단지 에 건설됐다.

원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원유 정제품의 품질을 급격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유공장에는 황을 따로 걸러내는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황 성분은 대기로 방출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 사업은 대부분 해상과 가동중인 공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작업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됐다. 특히, 공사 작업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하반기에는 쿠웨이트에 유래 없는 홍수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림산업은 계약한 공기보다 1개월 앞당겨 공사를 완료했다.

/정영문 기자 yw964@

예탁원, 실기주과실대금 7.6억 서민금융에 출연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 6000만원을 출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연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출연으로 출연규모는 2019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순서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하여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자금이다.

예탁결제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

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